

수 신 : 전 회원

참 조 :

제 목 :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 적용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12.31자로 전면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5호)」이 2011 회계연도 1분기에 최초 의무적용되어 외부감사인 및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불임과 같이 개정 유의사항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FAQ에 게시하고 본회 회원에 대해 안내를 요청해 온바, 불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icpa.or.kr → kicpa 정문정보 → 감사뉴스)

붙 임 :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 적용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 개정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적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이 개정되어 2011 회계연도의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업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아직 완료되지 않은 2010 회계연도의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업무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 개정 준칙은 검토절차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으며, K-IFRS가 2011 회계연도부터 의무도입되는 것과 연계하여 유의할 사항 등이 있어 감사인과 분·반기 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 등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개정 준칙 적용과 관련하여 검토업무 수행 및 보고서 발행시 주요하게 유의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분·반기 검토업무 수행시 동 내용을 적절히 참고하여 검토보고서가 동 개정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공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정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적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

#### ① 검토보고서의 각 문단 제목 명시 (문단 46의 (1)항)

- 검토보고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같이 의견명칭을 기재하는 등 문단별 제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검토준칙의 보론에 제시된 검토보고서 예제를 참고하여 문단별 제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문단별 제목 기재

기존 준칙 (문단별 소제목없음)	개정 준칙 (문단별 소제목기재)
○ (도입문단)	○ 검토대상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 (범위문단)	○ 검토인의 책임
○ (중간문단)	○ 의견변형의 근거
○ (의견문단)	○ 검토의견(비적정시 한정·부적정 등 직접명시)

## ② 분·반기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시 강조사항 예시 (부칙 문단 4)

- 개정 검토준칙 부칙 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0947호> 제23조에 따라 분·반기에 별도 재무제표만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이 안내한 ‘(회제이-00036, ‘11.3.3.) 분·반기 별도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작성 관련 안내 요청’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FAQ에 게시
-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등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한 사실 제공을 위하여 분·반기 별도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기재할 강조사항 문구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분·반기 별도재무제표 검토보고서상 강조사항 문구 예시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 주석 X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XX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947호> 제23조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까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고 분·반기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XX주식회사는 당 분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만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분·반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연차재무제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차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모두 작성되어야 합니다.

### ③ 재무제표 작성 준거기준 (문단 46)

- 개정준칙에서는 검토보고서상 재무제표 작성 준거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그 명칭을 직접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K-IFRS를 기초로 분·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검토보고서상 준거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다만,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19에 따르면, 분·반기 재무제표가 K-IFRS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기술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재무제표’ 형식이 아닌 ‘요약재무제표 또는 선별적 주식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작성 준거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K-IFRS 제1034호 문단 10과 15에서는 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선별적으로 주식을 기재하는 것은 비교가능한 직전연도 연차재무제표가 이용가능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의 K-IFRS 연차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전체 재무제표(complete set of financial statements)’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④ 기말감사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 법규 준수 및 개별 검토업무에 적용할 품질관리 절차 구축·운영 의무화 (문단 4·5)

- 검토 절차의 신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및 관련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별 검토업무에 적용할 품질관리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⑤ 검토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 (문단 12 ~ 18)**

- 검토 업무 수행시 전년도 감사·검토조서 열람, 전기 미수정된 왜곡 표시사항 고려, 왜곡표시 위험·경영환경 및 내부통제 변화 등에 대한 질문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절차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업무 수행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회계 및 보고에 있어 지속적으로 유의성을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⑥ 기초장부와 재무제표 금액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문단 27)**

- 질문 및 분석적 절차 위주의 검토 관행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인인 중간 재무제표와 보조원장·총계정원장 등 기초장부의 일치여부 및 추가 조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절차 수행하고 관련 검토조서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⑦ 경영자확인서 징구 의무화 (문단 36~37)**

- 경영자 확인서를 ‘필요한 경우’에 징구하도록 기존 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준칙에서는 ‘반드시’ 징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문단에 확인서상 포함될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경영자로부터 적절한 확인서를 징구하시고 이를 검토조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⑧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절차 예시 강화 (보론 2)**

- 검토업무 및 검토보고서의 품질향상 유도를 위해 최근 주요 이슈로 고려되는 파생상품, 금융상품 손상(감액), 공정가치 평가, 유형자산 재평가, 연결 및 지분법 등과 관련된 검토절차를 세부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검토 대상 회사에 관련 거래가 있는 경우 개정준칙의 보론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유형자산 등 공정가치 평가시 관련된 정책 파악 및 일관된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절차, 전기 대비 연결범위 변동·내부거래 파악 절차·연결그룹내 회계기준 일원화에 대한 검토절차 등 추가